

#### FOURTH WEEK : 넷째 주간

SLIDE ONE: Before we begin to talk about the graces of the Fourth Week, let's take a look at the movements that have brought us to this point.

슬라이드 1: 넷째 주간의 은총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를 여기까지 이끈 순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SLIDE TWO: We begin the retreat in the preparation days by reflecting on God's faithful, unconditional love for each of us. We consider who we are most fundamentally -- or rather, whose we are. Each one of us is God's beloved son or daughter: this is the core of our identity. We prayed for the grace to be more aware of God's nearness, to trust in God's personal care and love for me. We asked for a deepening intimacy with God in prayer. Because God created us and continues to create in and through us, we are by nature related to God. We a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and that image is indelible. The challenge for us is to be more aware of that ever-present relationship -- a difficult thing to do living in a world filled with many distractions. This leads us to the first key meditation of the exercises: The Principle and Foundation.

Ignatius gives us the "mission statement" for the human person:

We are created to praise, love, and serve God, and by doing this to save our souls.

The other things on the face of the earth are created for the human beings, to help them in the pursuit of the end for which they are created.

From this it follows that we ought to use these things to the extent that they help us toward our end, and free ourselves from them to the extent that they hinder us from it.

To attain this, it is necessary to make ourselves indifferent to all created things, in regard to everything which is left to our free will and is not forbidden. Consequently, on our own part we ought not to seek health rather than sickness, wealth rather than poverty, honor rather than dishonor, a long life rather than a short one, and so on in all other matter.

Rather we ought to desire and choose only that which is more conducive to the end for which we are created -- to praise, love, and serve God.

Only when we are free can we hear God's call in our lives. In Week One we recognize that sin is an inescapable reality of the human condition. We abuse the freedom God gives us, and make choices that hurt God, others, and ourselves. We suffer the natural consequences that flow from our sinful choices, and the sin of the world. We see the effects of sin in the disorder of our own lives, in social structures that de-humanize, marginalize, oppress, and hurt people. We consider the cosmic battle between good and evil. Even as we confront these realities, we remember the graces of the preparation days. We recall that we are loved by God unconditionally, and that God's desire is to free us from anything that blocks our loving and our growing into the person that God calls us, created us, to be. God does not simply love us despite our sin, but in our sin. We are LOVED SINNERS. God's love is greater than any sin.

We move on to the Kingdom Meditation: The great leader: Whose flag do we choose to follow? We meditate on the three persons of the Trinity gazing down on the earth, seeing the chaos, the woundedness, the disordered attachments, the lack of freedom. God the father's response is not anger, it is love. He sends His Son as a sign of His love.

We enter Week Two to journey with the son from His conception, Mary's "YES", his childhood, his baptism, the calling of disciples, the miracles, the healings, the raising of Lazarus. We follow Christ as He feeds the sheep, as He turns to prayer, and as He battles temptations. We see a new way to relate to God. We see Him being led by the Father, and we see His freedom in that following. We grow in intimacy with the Son as He follows the Father, we come to know the Son in a new way, and via the Son we know the Father in a new way. We prayed for the grace to see him more clearly, love him more dearly and follow him more nearly.

This journey, quite naturally, leads us to enter the Third Week and we pray through the passion of Christ. This intimacy that we have grown into with Christ leads us to desire to be with Jesus in his suffering; such is a compassionate response when someone we love is hurting or enduring some hardship.

We just want to stay with them, and be present to them, even when words fail, and we are powerless to end their suffering. The grace we seek in accompanying Christ through his Passion is the grace of compassion, to suffer with. We do not simply reflect on the physical pain that he endured, but on the emotional, interior suffering of one who was misunderstood, isolated, rejected, and alone. In Week three we focus on "being" with Jesus and less on all of the actions and "doing" of week two. A stillness pervades us, we keep our hearts and eyes clearly fixed on Jesus and avoid any intense self-examination. In practicing this silence and this focus on the love and passion of Christ, we ourselves become more like the One we walk with to Calvary: more loving, more faithful, more generous, and more compassionate.

We sit there on the longest Sabbath unsure of what has happened. We move to the empty tomb with the disciples. We sit in the confusion, we rest, we wonder what God has in store now. We make the transition to Week Four. The exercises have a movement to them. We descend in Week One, we rise in Week Two. We feel the descent in Week Three and rise, with Jesus, in Week Four as we experience the resurrection.

**슬라이드 2:** 우리는 준비기간에 우리에게 향하는 하느님의 충실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묵상하며 이 피정을 시작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생각합니다. 우리 정체성의 핵심은 우리 각자가 하느님의 사랑스런 아들 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은총과, 우리 개개인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총을 청했습니다. 우리는 기도 안에서 하느님과 더 친밀해지길 청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창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의 형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일들로 가득찬 세상에 살면서, 항상 존재하는 하느님과 관계를 인식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이나시오는 우리에게 “mission statement”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것은 하느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섬기며 또 이로써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다른 사물들이 창조된 것은 사람을 위해서 곧 사람이 창조된 목적을 추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이 이 목적에 도움이 되면 그만큼 사용할 것이고, 이 목적에 방해가 되면 그만큼 버려야 한다.

또, 그 자체로 금지되지 않고 우리의 자유 의지에 맡겨져 있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 초연해지도록 힘써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편에서는 질병보다 건강을, 가난보다 부를, 불명예보다 명예를, 단명보다 장수를 그리고 다른 모든 일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더 원하지 않을 만큼 되고 우리가 창조된 목적에도 우리를 더욱 이끄는 것을 원하고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자유로울 때에만 삶 속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 주간에서 우리는, 죄란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자유를 남용하여 하느님과 타인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해치는 선택들을 합니다. 우리의 죄스런 선택과 세상의 죄로 인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결과로 우리는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무질서한 삶 속에서, 비인간화 하는 사회 구조 안에서, 소외시키고, 억압하고, 사람들을 해치는 사회 구조 안에서 죄의 영향을 봅니다. 우리는 선과 악 사이의 우주 전쟁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더라도, 우리는 준비 주간의 은총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되기 위해서 사랑하고 성장하는 것을 막는 그 어떤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죄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죄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그 어떤 죄보다 위대합니다.

하느님 나라 묵상으로 옮겨갑니다. 위대한 지도자: 누구의 깃발을 따르기로 했나요? 우리는 성 삼위가 혼돈, 상처, 무질서한 애착, 자유가 부재한 세상을 내려다 보는 것을 묵상합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응답은 분노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시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우리는 둘째 주간으로 들어가 마리아의 “응답”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잉태로부터 어린시절, 세례, 제자들을 부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며 치유하시고 라자로를 다시 일으키신 여정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양을 먹이시고, 기도를 하시고 유혹과 싸우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릅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새롭게 관계를 맺는 방법을 알게됩니다. 아버지의 이끄시는 대로 자유롭게 따르는 그분을 봅니다. 그가 하느님 아버지를 따를 때 그 아드님인 주님과 우리와의 친밀함은 자라며, 그 아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알고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새로운 방식으로 압니다. 우리는 그분을 더욱 분명하게 보고 더욱 사랑하며 더 가까이 따를 수 있는 은총을 청했습니다. 이 여정은 우리를 셋째 주간으로 자연스럽게 이끌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수난을 따르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 중에서 성장한 그리스도와 친밀함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 속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끕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고통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느끼는 연민에 찬 반응입니다.

우리가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하고 그들의 고통을 끝내는 데 아무런 힘이 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고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하며 그분과 함께 고통받기를 원하게 되는 연민의 은총을 청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이 견뎌낸 육체적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 받고 고립되고 거부당하고 - 소외 받았던 당신께서 느끼셨을 내면의 정서적인 고통에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간에는 예수와 함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둘째 주간의 행동과 “수행”에는 덜 집중합니다. 고요함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의 마음과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게 되므로 자기 성찰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지양합니다. 이 침묵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수난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 자신은 골고다로 함께 걸어간 그분을 더 닮게 되어 더 사랑하고, 더 충실하며 더 관대하고 더 열정적으로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혼란스러워하며 가장 긴 안식일을 지냅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함께 빈 무덤으로 갑니다. 우리는 혼란스러워하며 무기력하게 하느님께서 지금 무엇을 준비해 두셨는지 궁금해합니다. 이제 넷째 주간으로 옮겨갑니다. 영신수련에는 각 주간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아래로 내려가고 둘째 주에는 위로 올라갑니다. 셋째 주에는 내려감과 올라감을 느끼고, 넷째 주에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며 올라갑니다.

**SLIDE THREE:** Now we enter into the last movement or “week” of the retreat. Now in the Fourth Week, we ask to share in the joy and peace of the Risen Lord. This joy, like any grace we pray for, is a gift from God; we cannot earn it or coerce it, but God desires to shower it upon us. We simply try to be open to receiving Easter joy by contemplating Christ as he shares the joy of the Resurrection with others.

The joy of the Fourth Week eludes simple description, much as love can never be fully defined, even after countless poets, songwriters and lovers have attempted to capture the mystery of it. Easter joy is rooted in our relationship with Christ, cultivated over a lifetime, and deepened now through the Exercises. Joy comes as one grows in faith, hope and love. In scripture, in the first letter of Peter (1: 8-9) we hear of an experience akin to the living in the fourth week. “Although you have not seen him, you love him; and even though you do not see him now, you believe in him and rejoice with an indescribable and glorious joy, for you are receiving the outcome of your faith, the salvation of your souls.”

We cannot understand the actual physical resurrection, which remains a great mystery. Christ is raised from the dead by His Father. He trusted God enough to relinquish His life for our sins. God’s transformation of life, his making all things new, as in new creation, is the resurrection on which we meditate. God conquers sin and death, once and for all. Instead of being distracted with the mechanics of the resurrection, or what the resurrected body looks like, we simply contemplate the Risen Lord, his presence to others. We notice how his friends both recognize and fail to recognize the One whom they have followed and loved. We companion him on the road to Emmaus and imagine our conversation with Him.

The gift of the fourth week is the joy of the resurrection of Christ. This does not save us from our crosses, but it gives us the strength to carry them. God is ever present to us and with us.

**슬라이드 3:** 이제 우리는 피정의 마지막 움직임 또는 “주간”을 시작합니다. 넷째 주간에는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를 나누길 청합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청하는 다른 은총처럼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획득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총을 쏟아 부어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마음을 열고 부활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시는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써 부활의 기쁨을 누립니다.

넷째 주의 기쁨은 수 많은 시인들과 작곡가들과 연인들이 사랑의 신비를 알아내려 시도했지만 그것에 대해 완전히 정의 내리지 못한 것처럼 넷째 주간의 기쁨은 단순히 설명될 수 없습니다.

부활의 기쁨은 우리와 그리스도와와의 관계에 뿌리내리고 있으며 일생을 통하여 연마하는 것으로 영신수련을 통해 더 깊어집니다. 사람이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성장할 때에 기쁨은 생겨납니다. 베드로 서간 1 장 8-9 절에서는 우리가 넷째 주간을 지내는 것과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육체가 부활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그것은 신비로 남아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아버지에 의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만큼 하느님을 신뢰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삶의 변화는, 마치 새롭게 창조하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으로, 우리가 묵상하는 부활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죄와 죽음을 한번에 정복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부활이 일어났을까 또는 부활한 몸에 대한 생각으로 방해받을 대신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였던 그들이 따르고 사랑했던 주님을 알아보고 또 알아보지 못했던 것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나누는 대화를 상상합니다.

넷째 주간의 은총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은총은 우리를 우리의 십자가로부터 구원해 주지는 않지만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을 줍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SLIDE FOUR:** We are then moved to the final contemplation in the text of Ignatius’s exercises: The contemplation on the love of God is called the contemplation to attain Divine Love. All through the exercises we have obtained God’s love. This contemplation is to attain God’s way of loving, to love as God loves. It is often referred to as The Contemplatio.

This contemplation returns us to the Principle and Foundation, which opened our retreat. The Principle and Foundation and the Contemplatio are the bookend meditations of the Spiritual Exercises. In the Principle and Foundation, we considered how we are created to praise, love and serve God, and how we are to rely on the goods of creation only to the extent that they facilitate our loving. Having journeyed through the Exercises, we now

reflect on the love of God in light of the many graces of the retreat. Contemplating the love of God, we seek to learn to love as God loves.

We first consider how God loves us into creation and sustains us in love. All is possible 'because God loved us first' (1. John). This love, as the essence of God, overflows into every part of our lives and into the world. In this contemplation, we ask for the vision to "find God in all things". To use some images created by the Jesuit poet Gerard Manley Hopkins, we want to notice how "the world is charged with the grandeur of God" and how "Christ plays in ten thousand places and ten thousand faces".

Attentive to God's presence everywhere and recognizing God's generosity to us, we naturally want to return the favor by praising, loving and serving God and others. God teaches us to love IN and THROUGH the Paschal mystery; the lif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Ignatius suggests that we place ourselves in God's presence by imagining ourselves "as standing before God our Lord, and also before the angels and saints", who are praying for us.

Ignatius tells us: "I ask for what I desire. Here it will be to ask for interior knowledge of all the great good I have received, in order that, stirred to profound gratitude, I may become able to love and serve the divine majesty in all things".

**슬라이드 4:** 우리는 이제 이냐시오의 영신수련 과정의 마지막 관상으로 옮겨갑니다.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관상은 - 신적인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이라고 부릅니다. 영신수련 전체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얻었습니다. 이 묵상은 하느님께서 사랑하는 방식을 배우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묵상은 우리를 이 피정을 시작할 때 살펴보았던 원리와 기초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영신수련의 원리와 기초 그리고 관상(Contemplatio)은 영신수련의 처음과 마지막 묵상입니다. 영신수련의 원리와 기초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찬미하고 사랑하며 그분께 봉사하기 위해 창조되었고, 창조된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사랑을 증진하는 범위안에서만 의존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신수련의 여정을 가고있는 우리는 이제 피정 동안 받은 많은 은총에 비추어 하느님의 사랑을 되돌아봅니다. 사랑을 위한 관상을 하며 우리는 하느님이 사랑하시는대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우선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1. 요한)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하느님의 본질인 이 사랑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과 세상 속에서 흘러 넘칩니다. 이 관상에서 우리는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찾을 수 있는 비전을 청합니다. 예수회원이며 시인인 Gerard Manley Hopkins 가 만든 몇몇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이 하느님의 위엄으로 가득차게 되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만 개의 장소에서 만 개의 얼굴로 활동하시는지"라고 한 표현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모든 곳에 계시는 하느님께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자비를 인식하면 자연스럽게 하느님과 타인을 향해 찬미와 사랑 그리고 봉사를 원하게 됩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인, 파스카 신비 안에서 그리고 그 신비를 통해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이냐시오 성인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주님이신 하느님 앞에, 또한 천사들과 성인들 앞에 서있는 것”을 상상함으로써 하느님의 현존 안에 우리 자신을 자리잡게 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하십시오. 내가 받은 선한 모든 것들에 대한 내적 인식을 구하며 깊은 감사를 느끼면 모든 일에 있어서 거룩하신 하느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SLIDE FIVE: Ignatius offers two preparatory comments to the Contemplation (SpEx 231). They are simple statements with remarkable depth:

1. Love ought to show itself more by deeds than by words. Charity – love in action – is the hallmark of discipleship. Ignatian spirituality is an apostolic spirituality – broken open into the practice and practicality of our daily lives. We are contemplatives in action; how we live our lives begins in our prayer and relationship with God.
2. Love consists of a mutual exchange between persons. Ignatius does not simply describe the “mutuality” of human love; he also emphasizes the reciprocity between God and ourselves. With God, our Creator, we enjoy a relationship of giving and receiving. God desires our friendship; God desires to be known by us. These desires have their source in God and also end in God. These divine desires are the source of our desire for God. Our love is a response to God loving us first.

슬라이드 5: 이냐시오 성인은 관상을 위해 두 가지 준비과정을 제시합니다 (영신수련 231). 이 준비과정은 단순한 문장이지만 심오한 깊이가 있습니다.

1. 사랑은 말보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자선-사랑의 실천-은 제자됨의 특징입니다. 이냐시오 영성은 사도적 영성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행동하는 관상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기도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2. 사랑은 두 당사자의 통교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 사랑의 “상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과 우리 자신 사이에 서로 주고 받는 관계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느님과 함께 주고 받는 관계를 즐깁니다. 하느님은 우리와의 우정을 원하시며 우리가 당신을 발견하길 원하십니다. 이 갈망들은 하느님께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하느님안에서 마무리 됩니다. 이런 거룩한 갈망들이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의 뿌리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드리는 응답입니다.

SLIDE SIX: The four focal points of prayer in the contemplation are:

- 1) God’s gifts to me
- 2) God’s self-giving to me
- 3) God’s labors for me
- 4) God’s unceasing giving and gifting.

슬라이드 6: 관상기도의 주목할 4 가지 기도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나에게 주신 하느님의 선물
- 2)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느님
- 3) 나를 위한 하느님의 수고
- 4) 하느님께서 주시는 끊임없는 은총

SLIDE SEVEN: 1) I contemplate all that is given to me: my creation, my redemption and the gifts that God has given uniquely to me; how can I do anything but be awe-struck by a God who loves me totally and deeply. He has given me all that I need, He has given me his very self. In gratitude, I ponder what I, on my part, return. It leads to this prayer:

Take Lord, and receive all my liberty;  
My memory, my understanding, and my entire will  
All that I have and call my own.  
You, Lord, have given all that to me.  
I now give it back to you, O Lord.  
All of it is Yours.  
Do with it what you will.  
Give me nothing more than your love and grace;  
These alone are enough for me (SpEx 234)

In offering God my liberty, memory, understanding, my will, everything I have, God will hold it all and keep it safe. He is the best steward of my ongoing identity. This prayer is an offering made in freedom. We have been praying for “holy indifference” throughout the retreat: to become free of disordered attachments, or more exactly, disordered loves. Now we focus on what this freedom is for – we become free from excessive attachments so that we can love and serve God and others more. Basking in the love of God, we are empowered to love as God loves. We ask: What are my particular gifts, talents, and other blessings that I want to offer for the service of God and others?

슬라이드 7: 1)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묵상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나만의 독특한 재능을 주신, 나를 지극하게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깊은 존경심을 드리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묵상합니다. 그분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으며 심지어 당신 자신도 내어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는 무엇을 돌려드릴까 생각합니다. 그 생각으로 이 기도를 바칩니다:

받아주소서, 주님. 저의 모든 자유와  
저의 기억과 지성, 저의 모든 의지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받아 주소서.  
당신이 이것들을 제게 주셨습니다.  
주님, 이 모두를 돌려드립니다.  
모두가 당신 것이오니



당신 뜻대로 처리하소서.  
제게는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주소서.  
이것으로 저는 족하옵니다.” (영신 수련 234 번)

하느님께 나의 자유와 기억과 지성, 의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면, 하느님께서서는 그것들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성장하고있는 나의 정체성을 지켜주시는 최고의 조력자이십니다. 이 기도는 자유로움으로부터 나오는 봉헌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피정을 하는 동안 “거룩한 불편함”을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무질서한 집착, 더 정확히 말해 무질서한 사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기도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는 지나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짐에 따라 하느님과 타인을 더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더 봉사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하느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드리고 싶은 나의 특별한 은총, 재능 그리고 다른 축복들은 무엇입니까?

SLIDE NINE: 2)I consider how God dwells in creatures, his self-giving:

- in the elements, giving them existence;
- in the plants, giving them life;
- in the animals, giving them sensation;
- in the human beings, giving them intelligence; and finally, how in this way,
- He dwells also in me, giving me existence, life, sensation and intelligence; and even further,
- Making me his temple, since I am created as a likeness and image of the divine majesty.

St. Ignatius’s words are: “See God present in you just as God is present in a temple. See yourself as God’s own image and divine likeness”.

Can you hear again the Principle and Foundation? Week Four reconnects us to the “mission statement” that Ignatius gave us at the beginning of the retreat. With the eyes of faith, we begin to understand how much of heaven is here on earth. God is with us.

슬라이드 9: 2) 하느님이 어떻게 피조물 안에 거하시며 자신을 내어주시는지를 봅니다:

- 물질들에 존재를 부여하심;
- 식물들 안에서 살아 성장하게 하시고;
- 동물들 안에서 감각을 느끼게 하시며;
- 사람들에게는 지성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 내 안에서 거하시어 내게 존재, 생명, 감각과 지성을 주시며; 더 나아가

나를 거룩하신 하느님의 모상과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당신의 성전이 되게 하심.

성 이냐시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것처럼 당신 안에 존재하시는 하느님을 보십시오. 당신 자신을 하느님의 모상과 형상으로 인식하십시오”

SLIDE TEN: 3) God labors and works for me in all the creatures on the face of the earth; that is, he acts in the manner of one who is laboring. What is a woman in labor doing? She is working to bring something to life, to bring something to fruition, to give birth in fullness, to convey life. What is God laboring to do? He is trying to lead us to wholeness. He is perfecting us in his image and his likeness. He is trying to convey to us the fullness of life and make us good and beautiful. God is trying to help us see ourselves the way He sees us already. God is not static. God – – revealed as the Father, Son and Holy Spirit – – is dynamic, alive, always stirring, and always laboring to bring life to his beloved creation. God is love overflowing. God continually creates in, through and with us. We marvel at that! The seventh day of creation has not arrived yet.

슬라이드 10: 3)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 안에서 나를 위해 일하고 수고하십니다. 즉 그분은 일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십니다. 분만 중인 여성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녀는 무언가에 생명을 불어넣고, 결실을 맺으며, 출산을 하고, 생명을 전달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무엇을 위해 일을 하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온전함으로 인도하려고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상과 형상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삶의 충만함을 전달하고 우리를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도록 도우려고 하십니다. 하느님은 멈추어 계신 존재가 아닙니다.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으로 드러나신 하느님은 역동적이고 살아계시며 항상 우리를 감동시키고 당신의 사랑스런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늘 일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흘러 넘치는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와 함께 창조하십니다. 감탄스럽습니다! 창조의 일곱 번째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SLIDE ELEVEN: 4) Finally, we reflect on God's unceasing giving and gifting. All good things descend from above, as the rays of the sun come down on us, God sends justice, goodness, piety, mercy and many other gifts. All of creation reflects those gifts that come from God. The gift becomes divine. You and God become one, like the rays of the sun and the sun. You can distinguish the rays from the sun, but there are no rays without the sun and there is no experience of the sun without the rays. The two have one identity. How can I cooperate in God's dream for the world? How can I reflect those gifts that he has showered on me? How can I act justly, kindly, mercifully, wisely? How can I act like God? Take Lord, and receive.....

슬라이드 11: 4)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느님의 끊임없는 베푸심과 선물에 대해 묵상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위에서 내려옵니다. 마치 태양 빛이 우리를 내려 비추는 것처럼, 하느님께서서는 정의와 선의와 인자함과 자비와 많은 다른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든 피조물은 이 모든 선물들이 하느님께서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선물들은 신성하게 됩니다. 태양 빛과 태양처럼 당신과 하느님은 하나가 됩니다. 당신은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구별할 수 있지만 태양이 없는 빛은 없고, 빛이 없는 태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두가지는 하나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향한 하느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협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게 쏟아 부어 주시는 이 선물들을 되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정당하고 친절하고 자비롭고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느님과 같이 행동할 수 있을까요? 주님 받으소서….

**SLIDE TWELVE:** We savor the graces of Week Four, we let gratitude permeate our prayer. Gratitude is freeing, for it opens us up to give what we have so abundantly received. Grateful people are happy people. Saint Augustine says, “Lord, you have made us for yourself… and our hearts are restless until they rest in you”. God sends us the Spirit so that we can continue to grow in faith, hope and love and live out our mission as disciples today. The spirit consoles, encourages, animates, enlivens, emboldens and missions us. The Spirit is a deeply personal gift, but like love, the Spirit is also shared. The Spirit of God forms us into one body, the church. In Week Four we come to know the joy and the peace of God. We acknowledge that the old order has passed away. We are forever changed by this experience of the exercises (metanoia). We are not the same person that started this journey. We have come to know God intimately in our lives. We have come to know Him as the source of all that is good. We have come to deeply understand his mercy and steadfastness in our lives. The experience of the exercises leads us from Week Four back to the beginning. We will circle through this experience many times in our life. We will move through the various graces and movements again and again, but each time experiencing something deeper and more intimate. This experience of the exercises will be with you forever. You will end it and proceed in the world, but it will never leave you. You will circle through the spiral of the exercises time and time again growing in intimacy with God.

**슬라이드 12:** 우리는 넷째 주간의 은총을 음미하며 감사가 우리의 기도에 스며들게 합니다. 감사는 마음을 열어 풍성하게 받은 것들을 내어 줌으로써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주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심장이 당신 품에서 쉴 때 까지 우리의 심장은 쉬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지금 여기에서 제자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살아 내며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생기를 불어넣고 대담하게 하고 사명을 부여합니다. 성령은 개인적인 깊은 선물이지만 사랑과 같이 성령은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영은 우리를 교회인 하나의 몸으로 만듭니다.

넷째 주간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기쁨과 평화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질서는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영신수련의 이 경험에 의해 영원히 변화됩니다 (회심). 우리는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친밀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선한 것들의 원천으로 그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자비와 굳건함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영신수련의 경험은 우리를 넷째 주간으로부터 시작하는 시점으로 데려갑니다. 우리는 이 경험을 우리 삶 속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은총과 움직임을 반복해서 겪겠지만, 매번 더 깊고 더 친밀해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영신수련의 경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당신은 영신수련을 끝내고 세상 속에서 계속 행할

것이지만 그 경험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반복적인 영신수련의 나선형 회전을 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SLIDE THIRTEEN:** Now I would like to open our conversation to questions and comments.

**슬라이드 13:** 이제 질문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